

뉴욕시의 도시외교



도시외교 시리즈 ④

뉴욕시의 도시외교

발행인 김봉현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발행일 2020년 11월 30일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여백플러스

뉴욕시의 도시외교

CONTENTS

요약	2
I 서론	3
II 독특한 뉴욕적 환경: 내재적 국제화	6
III 미국 내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하는 도시인 뉴욕	10
IV 결론	23

뉴욕시의 도시외교

요약

뉴욕은 해외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이지만 동시 미국 내의 일반적인 도시들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도시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미국도시와는 다르게 매우 국제화된 도시이다. 뉴욕시는 미국 이민의 중심으로 800개 이상의 언어가 소통되는 전 세계 차원에서 독특한 도시임과 동시에 유엔본부의 소재도시라는 점에서 도시업무에서 도시외교의 비중이 일찍이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였다. 뉴욕의 도시외교가 발달한 계기는 뉴욕시에 유엔본부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뉴욕 시장 직속 국제교류부(Mayo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업무는 1962년 로버트 바그너 시장이 '유엔담당 뉴욕시 집행위원(New York City Commissioner for the United Nations)' 직책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뉴욕에는 유엔본부외에도 193개의 상주대표부와 115개의 영사관, 75개의 무역관이 있다. 뉴욕은 유엔과 협력을 강화 하면서 국제사회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 시장을 역임한 블룸버그는 2007년에 "a greener, greater New York"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PlaNYC를 수립하여 글로벌 아젠다를 시정목표에 반영하여 이를 선도하였다. 2014년 1월 1일 취임한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의 도시기본계획 아젠다와 유엔의 SDGs를 연계하고 있다. 또한 뉴욕시는 유엔의 아젠다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지역 차원의 SDGs와 기후변화, 이민, 난민 문제의 아젠다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난민문제에 관련해서는 '난민-이민정책과 실무관련 세계 시장 정상회의(Global Mayors Summit on Refugee and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를 개최하였다. 이는 전 세계 난민문제의 최전선에 대도시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전 세계 도시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또한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연방정부가 이민-난민문제에 포용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되었고, 민주당 출신인 블라지오 시장이 이끄는 뉴욕시는 이민-난민문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하였지만, 뉴욕시는 뉴욕시가 파리협약을 준수한다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 **주제어** 뉴욕, 도시외교, UN, 이민, SDGs

I. 서론

뉴욕은 해외에서 미국을 상징하는 도시이지만 동시 미국 내의 일반적인 도시들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도시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큰 관심이 없는 일반적인 미국도시와는 다르게 매우 국제화된 도시이다.

실제로 뉴욕은 역사적으로 이민자들이 입국하는 관문이었다. 이민 초기였던 1855년부터 뉴욕 맨하튼 남부 캐슬 가든(Castle Garden) 이민국에서 35년 동안 800만명이 넘는 이민심사를 하였다. 그리고 1892년부터 1954년까지 엘리스 아일랜드(Ellis Island)에서 이민자의 입국이 이루어졌고, 현재 미국시민의 40%가 조상의 흔적을 엘리스 아일랜드에서 찾을 수 있다. 엘리스 아일랜드에서 이민 심사가 정점에 이르렀던 1900년부터 1914년까지는 엘리스 아일랜드에서 매일 평균 1900명이 이민수속을 밟았다. 1925년부터 1954년까지 230만명의 이민자들이 뉴욕항을 통해서 입국했는데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의 절반이상이 뉴욕항을 통해서 입국하였다.¹⁾

이와 같은 내재적인 국제화를 배경으로 미국의 도시외교에서 뉴욕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에서 뉴욕, 아틀란타, L.A. 3개 도시가 도시외교를 지휘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국제교류부(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를 두고 있다.²⁾

랜드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정책센터 소장(Director of the RAND Center for Asia Pacific Policy)인 라피크 도사니(Rafiq Dossani)는 미국 내 도시외교의 중요성에 대해 “도시들은 국제 조약에 서명하지 않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대사관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도시는 모든 종류의 협상에 참여할 수 있고, 합의에 도달할 수 있으며, 세계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시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1) history.com. “Ellis Island.” <https://www.history.com/topics/immigration/ellis-island> (검색일: 2020. 10. 10.)

2) Rand Corporation(랜드연구소). “City Diplomacy Has Been on the Rise. Policies Are Finally Catching Up.” <https://www.rand.org/blog/2019/11/city-diplomacy-has-been-on-the-rise-policies-are-finally.html> (검색일: 2020. 10. 10.)

상대방과 대화에 참여하고, 공공 외교를 촉진하고, 모범 사례를 공유하며, 국제 민간과 공공 기관 간의 협력을 장려한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의 외교, 세계 이미지,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이 힘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³⁾

뉴욕시 국제교류부(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는 국제사회와 뉴욕시 기관 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있다. 뉴욕시 국제교류부는 뉴욕시의 정책과 모범 사례를 전세계적으로 공유하고, 외국 정부, 유엔, 미국 국무부의 요청에 대응하는 데 업무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뉴욕시 국제교류부는 뉴욕시 산하 기관에 외교 및 영사관련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제공하고 뉴욕시에 소재한 외교 및 영사 커뮤니티 (Diplomatic and Consular Community)에 뉴욕시 관련 현안에 대해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⁴⁾

뉴욕시의 국제교류부의 역사는 196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2년 애들라이 스티븐슨(Adlai Stevenson) 유엔주재 미국대사의 제안으로 로버트 바그너(Robert Wagner) 시장은 ‘유엔담당 뉴욕시 집행위원(New York City Commissioner for the United Nations)’ 직책을 신설해 외교계와 지역주민, 기업, 정부 간 연락역할을 담당했다. 바그너 시장은 엘레노어 클라크 프렌치(Eleanor Clark French)를 초대 집행위원으로 임명했다. 집행위원의 임무는 유엔본부가 있는 도시인 뉴욕시의 역할을 증진하고, 유엔 관리·대표단·직원들에 제공될 수 있는 뉴욕시정 서비스와 협력사업을 조율하고, 뉴욕시 내 외교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조직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1966년 존 린제이(John Lindsay) 시장은 뉴욕시 UN 위원회(the New York City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라는 공식위원회 설치하여 ‘유엔담당 뉴욕시 집행위원(New York City Commissioner for the United Nations)’ 사무실 기능을 확대하였다. 1970년 행정명령을 통해서 ‘뉴욕시 영사단 위원회(the Consular Corps Committee of the City of New York)’를 뉴욕시 공공행사부(Department of Public Events)에서 뉴욕시 UN 위원회로 이관하여 뉴욕시 ‘유엔과 영사단 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and the Consular Corps)’를

3) Rand Corporation(랜드연구소). “City Diplomacy Has Been on the Rise. Policies Are Finally Catching Up.” <https://www.rand.org/blog/2019/11/city-diplomacy-has-been-on-the-rise-policies-are-finally.html> (검색일: 2020. 10. 10.)

4)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https://www1.nyc.gov/site/international/about/about.page> (검색일: 2020. 10. 10.)

설립하였다.

1992년 데이비드 던킨스(David Dinkins) 시장은 ‘유엔과 영사단 위원회’에 국제사업부(Divis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를 설립했다. 뉴욕 소재 외국 정부의 영사관들은 뉴욕에 사무실을 여는 데 관심이 있는 외국 기업을 지원하는 상무관(trade commissioner)을 두고 있다. 국제 사업부(Division for International Business)는 상무관, 외국 정부 대표, 미국-해외국가 합작 상공회의소(bi-lateral chambers of commerce),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기업과 직접 협력사업을 진행하였다. 뉴욕시 ‘유엔과 영사단 위원회’ 국제사업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뉴욕시에서 외국기업이 사업을 열거나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보 제공과 외국기업에 대한 컨시어지 서비스가 포함되었다. 1997년에는 뉴욕시 의전담당 부서(Michael Rubens Bloomberg)가 ‘유엔과 영사단 위원회’에 합쳐져서 뉴욕시 ‘유엔, 영사단, 의전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Consular Corps and Protocol)’가 되었다. 마이클 블룸버그(Michael Rubens Bloomberg) 시장은 2012년 행정명령을 통해서 ‘유엔, 영사단, 의전위원회(the Commission for the United Nations, Consular Corps and Protocol)’를 ‘뉴욕시장 직속 국제교류부(Mayo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⁵⁾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뉴욕시는 미국 이민의 중심으로 800개 이상의 언어가 소통되는 전 세계 차원에서 독특한 도시임과 동시에 유엔본부의 소재도시라는 점에서 도시업무에서 도시외교의 비중이 일찍이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하였다. 또한 뉴욕시장 직위에 있었던 정치인들이 미국 정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인물들이었던 만큼 뉴욕시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글로벌 아젠다는 영향력이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시장과 연방정부가 정치적으로 다른 정당소속일 경우에는 뉴욕시 차원에서 연방정부의 입장과는 다르게 추진된 정책도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선언 한 직후 뉴욕시장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파리협정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이다.

5)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History of the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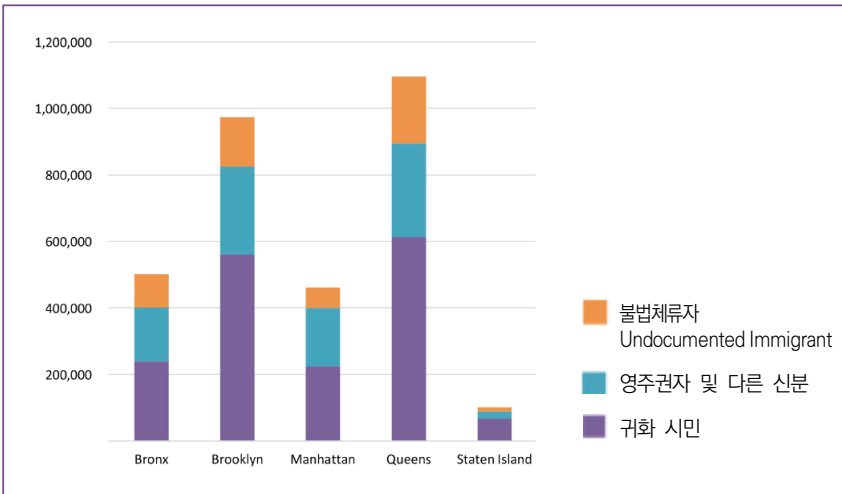
<https://www1.nyc.gov/site/international/about/history-of-the-office.page> (검색일: 2020. 10. 10.)

II. 독특한 뉴욕적 환경: 내재적 국제화

860만 뉴욕시민 중 330만명이 해외출생이다. 뉴욕주 전체 해외출생 주민이 440만 명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언어적 측면에서도 860만 뉴욕 시민들이 구사할 수 언어는 800가지 이상이 된다.

▶ 그림 1 뉴욕시 자치구별 이민 인구

(단위: 명)



출처: NYC MOIA Annual Report 2018⁶⁾

뉴욕시 전체 인구의 38%, 뉴욕시 노동인구의 45%가 해외출생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다.⁷⁾ 뉴욕시민 중 62%가 가구 내 1명 이상 이민자가 있다.

6) NYC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State of Our Immigrant City, Annual Report. March 2018, p.11.

7) NYC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State of Our Immigrant City, Annual Report. March 2018, p.9.

▶ 표 1 이민 유형별 뉴욕시 인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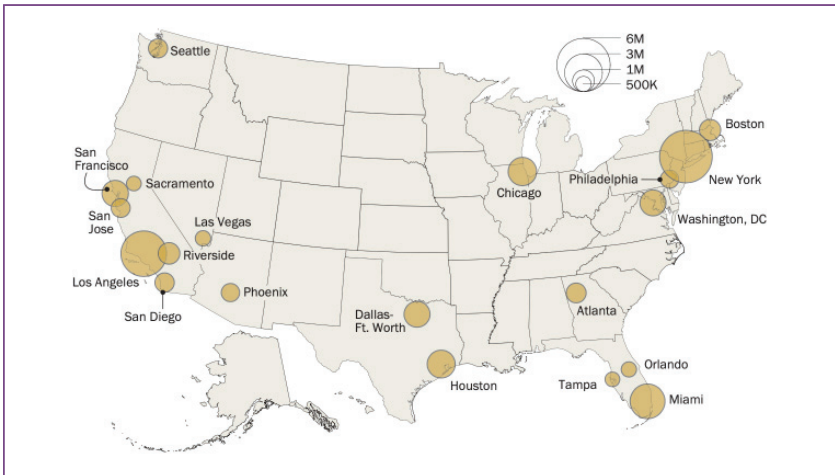
(단위: %)

이민 유형		인구구성
미국 출생		62.2
해외출생	합계	37.8
	귀화시민	20.6
	영주권 및 다른 신분	10.9
	불법체류자	6.3

출처: NYC MOIA Annual Report 2018⁸⁾

뉴욕은 이민자 출신 주민이 많은 미국 내 20대 대도시지역에 속하고 있으며, 이 지역이 미국내 해외출생 주민인구의 64%를 차지하고 있다.

▶ 그림 2 2018년 이민자 인구가 가장 많은 20대 대도시



출처: PEW Research Center⁹⁾

8) NYC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State of Our Immigrant City, Annual Report. March 2018, p.11.
 9) PEW Research Center. “20 metropolitan areas with the largest number of immigrants in 2018.”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8/20/key-findings-about-u-s-immigrants/ft_2020-08-20_immigrants_07a/ (검색일: 2020. 10. 10.)

▶ 표 2 해외출생 뉴욕시민의 출생지역 상위 10위

해외 출신 뉴욕시민의 출생지역		명	해외출생 뉴욕시민 중 비중(%)
전체 해외출생자		3,133,808	-
1	도미니카 공화국	422,244	13.5%
2	중국	318,581	10.2%
3	멕시코	183,197	5.8%
4	자메이카	176,718	5.6%
5	가이아나	136,760	4.4%
6	에콰도르	129,693	4.1%
7	아이티	88,383	2.8%
8	트리니다드 & 토바고	83,222	2.7%
9	방글라데시	80,448	2.6%
10	인도	76,424	2.4%

출처: NYC MOIA Annual Report 2018¹⁰⁾

▶ 표 3 해외출생 뉴욕시민이 영어 이외에 사용하는 상위 10위 언어

	해외출생 뉴욕시민이 영어 이외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	해외출생 뉴욕시민이 영어 이외에 사용하는 언어 중 비중(%)
1	스페인어	40.9%
2	중국어	15.0%
3	러시아어	7.2%
4	아이티 크레올	3.6%
5	벵갈어	3.3%
6	이탈리아어	2.3%
7	아랍어	2.2%
8	한국어	2.0%
9	폴란드어	1.8%
10	프랑스어	1.7%

출처: NYC MOIA Annual Report 2018¹¹⁾

10) NYC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State of Our Immigrant City, Annual Report. March 2018, p.12.

11) NYC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State of Our Immigrant City, Annual Report. March 2018, p.12.

이민자의 인적구성 비중이 높고 문화적 다양성이 크다는 점과 함께 뉴욕시가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갖는 점은 뉴욕시 내에 전 세계 최대의 외교-영사 커뮤니티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뉴욕의 도시외교가 발달한 계기는 뉴욕시에 유엔본부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현재 뉴욕시장 직속 국제교류부(Mayo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업무는 1962년 로버트 바그너 시장이 '유엔담당 뉴욕시 집행위원(New York City Commissioner for the United Nations)' 직책을 신설하면서 시작되었다.

뉴욕에는 유엔본부 외에도 193개의 상주대표부와 115개의 영사관, 75개의 무역관이 있다. 뉴욕시는 아래와 같은 프로그램을 유엔과 협력하여 운영하고 있다.

- Connecting Local to Global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뉴욕시 외교-영사 커뮤니티를 뉴욕 거주 외교관들과 영사들이 거주하는 뉴욕시와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으로, 뉴욕시장 직속 국제교류부(Mayo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는 뉴욕시 산하기관과 협력하여 뉴욕시의 114개 영사관이 뉴욕시 기관의 업무에 대해서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뉴욕시의 프로그램을 영사 커뮤니티에 공유하여 뉴욕시가 외교가들로부터 해외 모범사례를 배울 기회를 갖도록 한다.
- NYC Junior Ambassadors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뉴욕시의 7학년¹²⁾ 학생들을 위한 학습자원으로 유엔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유엔활동과 세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유엔의 목표에 동참하도록 한다.
- Global Vision | Urban Action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와 뉴욕시의 OneNYC 비전에 포함된 뉴욕시차원의 지역 지속가능 및 개발 이니셔티브 간의 시너지를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Global Vision | Urban Action 프로그램은 뉴욕시와 국제사회의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사회와 세계에서 채택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솔루션과 정보를 공유하는 플랫폼이다.

뉴욕은 유엔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12) 미국의 교육제도: 초등학교 5년(1학년-5학년), 중학교 3년(6학년-8학년), 고등학교(9학년-12학년)

III. 미국 내에서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하는 도시인 뉴욕

2002년부터 2013년까지 뉴욕시장을 역임한 블룸버그는 2007년에 “a greener, greater New York”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PlaNYC를 수립하여 글로벌 아젠다를 시정목표에 반영하여 이를 선도하였다.

PlaNYC는 브라운필드의 복원, 주거, 야외공관,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수질관리, 대기질관리, 기후변화 등에서 목표를 설정하였다.

2014년 1월 1일에 취임한 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의 도시기본계획 아젠다와 유엔의 SDGs를 연계하고 있다. 2015년 유엔차원에서 SDGs가 발표되기 몇 달 전에 뉴욕차원에서 OneNYC 비전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유엔차원의 SDGs의 목표 중 상당수가 이미 OneNYC에 반영되었다.

▶ 그림 3 PlaNYC과제 사례 (2007년-2013년)



출처: 이정찬.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과 OneNYC 2050”¹³⁾

13) 이정찬(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과 OneNYC 2050.” 2019 서울에너지포럼 I. 2019, p.4.

2015년 뉴욕시는 뉴욕시민 기업 시민지도자, 정책 전문가 및 지역 사회지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성장, 형평성, 지속가능성 및 탄력성을 원칙으로 하는 OneNYC(One New York: The Plan for a Strong and Just City) 비전을 발표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가수준의 SDGs에 초점을 두었으나, OneNYC와 SDGs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인식한 뉴욕은 도시기본발전계획인 OneNYC의 기본 틀을 사용해서 SDGs와 연계하였다. 2015년 4월 출범한 플랜(OneNYC)은 성장, 형평성, 지속가능성, 탄력성 등 4대 상호의존적 비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neNYC의 비전1인 ‘Our Growing, Thriving City’는 뉴욕시가 “가족, 기업, 동네가 번창하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경제가 될 것”을 의미한다. OneNYC의 비전1은 SDGs 목표의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을 다루고 있다.

OneNYC의 비전2인 ‘Our Just and Equitable City’는 뉴욕시가 ‘모든 뉴욕 시민들이 존엄과 안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좋은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하는 포용적이고 공평한 경제를 가질 것’을 의미한다. OneNYC의 비전2는 SDGs 목표의 1번, 2번, 3번, 4번, 5번, 8번, 10번, 11번, 16번을 다루고 있다.

OneNYC의 비전3인 ‘Our Sustainable City’는 뉴욕시가 ‘세계에서 가장 지속 가능한 대도시일 것이며 기후 변화 대응에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을 의미한다. OneNYC의 비전3은 SDGs 1번, 2번, 3번, 6번, 7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과 짝을 이룬다.

OneNYC의 비전4인 ‘Our Resilient City’는 ‘우리의 지역, 경제 및 공공 서비스가 기후변화 및 이외의 21세기 도전을 견뎌내고 더욱 강하게 일어설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을 의미한다. OneNYC의 비전4는 SDGs 1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3번, 14번과 짝을 이룬다.

그림 4 뉴욕의 OneNYC 비전과 SDGs



출처: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¹⁴⁾

14)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2018. Global Vision | Urban Action. Voluntary Local Review. 2018. p.19.

표 4 SDGs의 17대 목표

- ①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 ② 기아 종식, 식량 안보 달성,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 ③ 모든 연령층의 모든 사람을 위한 건강한 삶 보장 및 복지증진
- ④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
- ⑤ 성평등 달성 및 모든 여성과 소녀의 권익 신장
- ⑥ 모두를 위한 물과 위생의 이용가능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보장
- ⑦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신뢰성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 보장
- ⑧ 모두를 위한 지속적이고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 ⑨ 회복력 있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증진 및 혁신 촉진
- ⑩ 국가 내 및 국가 간 불평등 완화
- ⑪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회복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정주지 조성
- ⑫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 보장
- ⑬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의 실시
- ⑭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대양, 바다 및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사용
- ⑮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 황폐화 중지, 역전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 ⑯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증진,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접근 제공 및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 구축
- ⑰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출처: 지속가능발전포털¹⁵⁾

2015년 SDGs의 중요성을 인식한 뉴욕시는 Global Vision|Urban Action platform을 창설하여 국가 간에 우수 실천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SDGs 분야의 전문가들인 유엔본부의 외교관들이 뉴욕시의 5개 자치구역(맨해튼·브루클린·퀸스·브롱크스·스태튼아일랜드)에서 뉴욕시의 기구들이 어떻게 지속가능성 정책(sustainability policies)을 실천하는지 참관하도록 한다. 또한 SDGs 주제에서 진행된 뉴욕시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양한 국가의 대표들이 “성별에 따른 폭력”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도전적인 주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모임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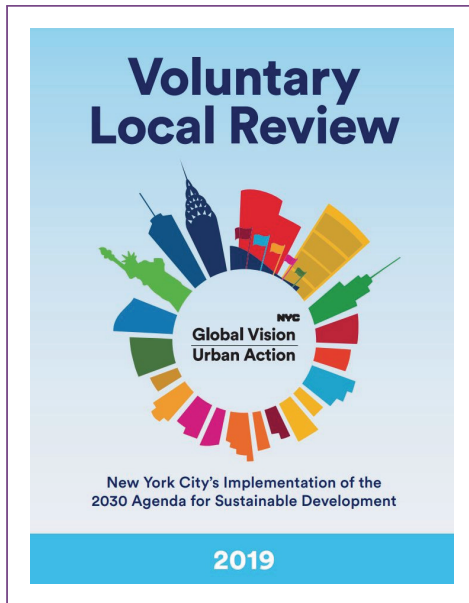
뉴욕시장 직속 국제교류부(Mayor's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작된 OneNYC는 현재 모근 이니셔티브가 진행 중에

15)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http://ncsd.go.kr/unSDGs?content=2> (검색일: 2020. 10. 10.)

있으며, OneNYC 지표의 80%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거나 개선되었다. 2017말로 설정된 564개의 이정표 중 86%가 완료되거나 부분적으로 완료되었다.¹⁶⁾

또한 뉴욕시는 2018년 5월 1일 도시로서는 세계 최초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주관 고위급정치포럼(HLPF: High-Level Political Forum) 기간 중 유엔에 직접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서(VLR: Voluntary Local Review)’를 제출한다고 선언하였다. 이후 뉴욕시는 국가별 SDGs 진행상황 보고(VNR: Voluntary National Review)에서 OneNYC와 SDGs간의 연계성을 확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VLR(Voluntary Local Review)를 발표하고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있다.

▶ 그림 5 뉴욕시의 VLR(Voluntary Local Review)



출처: Local 2030¹⁷⁾

16)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NYC Leads Global Voluntary Local Review Movement." <https://www1.nyc.gov/site/international/programs/voluntary-local-review.page> (검색일: 2020. 10. 10.)

17) Local 2030. "NEW YORK CITY PRESENTS ITS SECOND VOLUNTARY LOCAL REVIEW ON ITS SDGs PROGRESS." <https://www.local2030.org/story/view/310> (검색일: 2020. 10. 10.)

뉴욕시는 2019년 4월 22일,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과 관련된 장기 플랜 ‘OneNYC 2050’를 수립하고, 2019년 4월 18일 관련 실행법인 기후 대응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만들어 그린뉴딜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뉴욕의 OneNYC2050 비전은 8개의 목표와 30개의 이니셔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활기찬 민주주의(A Vibrant Democracy)”, “포용경제(An Inclusive Economy)”, “지역사회가 번성하는 도시(Thriving Neighborhoods)”, “건강한 삶(Healthy Lives)”,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Equ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살기 좋은 기후(A Livable Climate)”, “효율적인 이동성(Efficient Mobility)”, “현대적인 인프라(Modern Infrastructure)”가 뉴욕 OneNYC2050 비전의 8개 목표이다.

표 5 OneNYC2050 비전의 8개 목표와 30개 이니셔티브

<p>활기찬 민주주의(A Vibrant Democrac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모든 뉴욕시민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준다. ② 세계 각지에서 온 새로운 뉴욕시민들을 환영하고, 이들이 시민생활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정의와 평등한 권리를 증진하고, 뉴욕시민과 시정부간의 신뢰를 구축한다. ④ 세계무대에서 민주주의와 시민혁신을 촉진한다. <p>포용경제(An Inclusive Econom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보수가 좋은 일자리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 뉴욕시민이 이러한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 ⑥ 공정한 임금과 혜택확대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한다. ⑦ 근로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 소유권, 의사결정력을 확대한다. ⑧ 현재와 미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한다. <p>지역사회가 번성하는 도시(Thriving Neighborhood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⑨ 모든 뉴욕시민이 안전하고 주거부담이 적은 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⑩ 모든 뉴욕시민이 거주지역의 열린 공간과 문화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⑪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공동책임을 촉진하고 치안유지 활동을 강화한다. ⑫ 장소기반 공동체 계획수립 및 전략을 도모한다. <p>건강한 삶(Healthy Live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⑬ 모든 뉴욕시민들에게 접근성이 좋고 합리적인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⑭ 모든 지역사회의 건강 및 정신건강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형평성을 개선한다. ⑮ 모든 지역사회가 건강한 생활습관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한다. ⑯ 건강 및 복지를 위한 필요조건을 성립하는 물리적 환경을 설계한다.
--

교육의 평등 및 우수성(Equity and Excellence in Education)

- ⑰ 뉴욕시가 유아교육 측면에서 선도적 국가모델로 자리매김 하도록 한다.
- ⑱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K-12)의 기회와 성취측면에서의 형평성을 개선한다.
- ⑲ 뉴욕시 학교의 통합, 다양성, 진학률을 개선한다

살기 좋은 기후(A Livable Climate)

- ⑳ 탄소중립성과 100% 청정전기 사용을 달성한다.
- ㉑ 지역사회, 건물, 인프라, 해안가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보다 강화한다.
- ㉒ 기후변화대응을 통해 모든 뉴욕시민에게 경제적 기회를 창출한다.
- ㉓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정의를 위해 투쟁한다.

효율적인 이동성(Efficient Mobility)

- ㉔ 뉴욕시의 대중교통망을 현대화한다.
- ㉕ 뉴욕시의 거리가 안전하고 높은 접근성을 갖도록 보장한다
- ㉖ 교통혼잡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 ㉗ 지역과 세계와의 연결을 강화한다.

현대적인 인프라(Modern Infrastructure)

- ㉘ 핵심적인 물리적 인프라 및 위험완화에 대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수행한다.
- ㉙ 21세기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한다.
- ㉚ 자산관리 및 주요 프로젝트이행을 위한 모범사례를 구현한다.

출처: OneNYC 2050¹⁸⁾

뉴욕시는 2019년 4월 18일,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통과시켜서 OneNYC2050비전에서 제시된 목표들의 추진기반을 강화하려 하였다. 기후활성화법은 2050년까지 뉴욕시의 중대형 빌딩에서 배출되는 온실 가스를 80% 감축시키기 위해 수립된 법적 규제이다. 중대형 빌딩은 뉴욕시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을 차지하고 있어 저감 대책이 시급하였다. 기후활성화 법은 10개의 패키지 법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평가시스템 및 재정혜택 구축 등을 지원하는 내용 까지 포함하고였다.¹⁹⁾

18) OneNYC 2050. "The Strategy." <http://onenyc.cityofnewyork.us/initiatives/the-strategy/> (검색일: 2020. 10. 10.)

19) 이정찬.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9. p.4.

또한 뉴욕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미국의 파리협약 탈퇴를 공식선언 한 직후 뉴욕시장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파리협약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뉴욕시의 행동에 다른 미국도시도 동참을 하였다. 뉴욕시는 2017년 파리협약-준수 계획(Paris Agreement-compliant plan)을 발간하는 세계 최초의 도시가 되었다.

뉴욕시장은 이민문제에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17년 9월 5일 불법 입국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88만 명의 불법 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DACA) 프로그램’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다카란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로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하는 청년들을 강제 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미 의회에서 가족과 집, 직장을 가진 수백만 불법 체류자의 지위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무산되자 2012년 6월 다카 프로그램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공포했다.²⁰⁾

반면에 뉴욕시는 이민자의 법적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뉴욕시민이 뉴욕시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IDNYC를 발급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5년 1월 1일자로 개시하였다. 이는 뉴욕시에 56만 명 가량의 불법체류자가 주민으로 있다는 상황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행된 조치이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이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협상을 포기했을 때, 뉴욕시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에 지역의 견해가 들어가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 50여개의 미국내외의 도시와 연합체(coalition)를 결성하였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배경은 2016년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이주 (Migration)와 난민(Refugee)에 관련 정상회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20) 불법 체류자 가운데 2012년 6월15일 현재 만 31세 미만으로 2007년 이후 계속 미국에 거주했으며, 16세 이전부터 미국에서 자란 청년이 이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다. 아울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대학 졸업증을 받았거나, 미군에서 복무 중이며, 중범죄로 기소된 전과가 없어야만 다카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나중에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될 경우 고향으로 추방된다.

그림 6 2016년 2016년 9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진행된 이주(Migration)와 난민(Refugee)에 관련된 회의



출처: IOM 유엔 국제이주기구²¹⁾

193개의 유엔 회원국은 인간의 이동 (Human Mobility)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법과 강화된 국제 협력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모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난민과 이주자를 위한 뉴욕 선언(New York Declaration for Refugees and Migrants)”이 채택되었다. 뉴욕 선언에는 다음의 주요 약속이 포함되었다.²²⁾

- 언제든지, 체류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자의 안전과 존엄성, 인권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한다.
- 난민과 이주자를 구조하고, 받아들이는 국가들을 지원한다.
- 이주자뿐만 아니라 이주자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필요에 대응하고, 역량을 지원함으로써 이주자를 인도적 지원 및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포함한다.
- 외국인 혐오, 인종차별과 모든 이주자에 대한 차별에 맞선다.

21) IOM 유엔 국제이주기구.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http://iom.or.kr/index.php/%EC%9D%B4%EC%A3%BC-%EA%B8%80%EB%A1%9C%EB%B2%8C-%EC%BB%B4%ED%8C%A9%ED%8A%B8-2/> (검색일: 2020. 10. 10.)

22) 이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에 대해서는 아래의 IOM 유엔 국제이주기구 자료를 인용하였다.

IOM 유엔 국제이주기구.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http://iom.or.kr/index.php/%EC%9D%B4%EC%A3%BC-%EA%B8%80%EB%A1%9C%EB%B2%8C-%EC%BB%B4%ED%8C%A9%ED%8A%B8-2/> (검색일: 2020. 10. 10.)

- 국가가 주도하여 취약한 이주자 보호 지원을 위해, 자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위의 내용과 같은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유엔의 지원 하에 세계 각국이 이주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 차원의 첫 합의문이었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18개월 동안의 협상과정을 거쳐 2018년 12월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유엔 회원국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18년 12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이주의 모든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²³⁾

- 국제 이주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 협력을 지원한다.
- 국제 이주에 관련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담은 포괄적인 이행안을 제시한다.
- 각국이 마주한 이주 현실과 역량에 맞추어 이주 정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과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주권존중의 원칙에 따라 수립부터 채택에 이르기까지 각국 정부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표 6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 정확하고 세분화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한다. 2. 출신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주의 부정적 원인과 구조적 요인을 최소화한다. 3. 이주의 모든 단계에서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4. 모든 이주자가 법적 신분증과 적절한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도록 보장한다. 5. 정규적 이주로 이르는 경로의 이용가능성과 유연성을 강화한다. 6. 공정하고 윤리적인 채용을 촉진하고 양호한 근로를 보장하는 여건을 보호한다. 7. 이주와 관련한 취약성에 대응하고 이를 감소시킨다. 8. 이주자의 생명을 살리고 실종된 이주자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9. 이주자 밀입국 알선에 관한 초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

23) 2018년 12월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유엔 회원국 정부간 회의에서 채택되고 2018년 12월 19일 유엔 총회에서 정식 승인을 받은 이주 글로벌 컴팩트의 세 가지 목표는 아래의 IOM 유엔 국제이주기구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IOM 유엔 국제이주기구. "안전하고, 질서 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글로벌 컴팩트."
<http://iom.or.kr/index.php/%EC%9D%B4%EC%A3%BC-%EA%B8%80%EB%A1%9C%EB%B2%8C-%EC%BB%B4%ED%8C%A9%ED%8A%B8-2/> (검색일: 2020. 10. 10.)

10. 국제 이주의 맥락에서 휴먼 트래피킹(인신매매)을 방지하고, 이에 맞서고, 이를 근절한다.
11. 통합적이며 안전하고 잘 조정된 방식으로 국경을 관리한다.
12. 스크리닝, 평가 및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이주 관련 절차의 확실성과 예상가능성을 강화한다.
13. 이주자 구금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하며 구금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한다.
14. 이주 과정 전반에 걸쳐 영사 보호,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15. 이주자에게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16. 완전한 포용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주자와 사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17. 모든 종류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주에 대한 인식 형성을 위해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담론을 장려한다.
18. 직업 숙련도 향상에 투자하고 기술, 자격, 역량의 상호인정을 촉진한다.
19. 이주자와 디아스포라가 모든 국가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온전하게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한다.
20.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고 저렴한 이주자 해외 송금을 촉진하고 이주자의 금융 포용성을 증진한다.
21. 안전하고 존엄성을 존중하는 귀환 및 재입국, 그리고 지속가능한 재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22. 사회보장 자격과 취득한 혜택의 이동성을 위한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23.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제 협력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출처: IOM 유엔 국제이주기구²⁴⁾

그러나 이민문제에 대해서 강경책을 추구하였던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주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for Migration)” 협상을 포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와 정치적으로 대적점에 있었던 블라지오 시장이 이끄는 뉴욕시는 본 아젠다를 주도하였다.

뉴욕시는 2017년 유엔총회 기간에 ‘난민-이민정책과 실무관련 세계 시장 정상회의(Global Mayors Summit on Refugee and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를 개최하였다. 본 정상회의에서 새로 도착한 이민자와 난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난민과 이민 수용의 최전선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장기적으로 다양성과 포용력을 키우는 장기적인 도시정책을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되었다.

24) IOM 유엔 국제이주기구. “안전하고, 질서있고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약속: 이주 글로벌 컴팩트.” http://iom.or.kr/wp-content/uploads/2013/03/%EC%95%88%EC%A0%84%ED%95%98%EA%B3%A0-%EC%A7%88%EC%84%9C%EC%9E%88%EA%B3%A0-%EC%A0%95%EA%B7%9C%EC%A0%81%EC%9D%B8-%EC%9D%B4%EC%A3%BC-%EA%B8%80%EB%A1%9C%EB%B2%8C-%EC%BB%B4%ED%8C%A9%ED%8A%B8_%EB%B8%8C%EB%A1%9C%EC%85%94%EB%B3%B4%EA%B8%B0.pdf (검색일: 2020. 10. 10.)

그림 7 난민-이민정책과 실무관련 세계 시장 정상회의
(Global Mayors Summit on Refugee and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출처: 뉴욕시²⁵⁾

본 회의에는 독일 알테나(Altena), 그리스 아테네, 미국 아틀란타, 미국 오로라(Aurora), 미국 오스틴, 스페인 바르셀로나, 콜롬비아 보고타, 미국 보스턴, 영국 브리스톨, 벨기에 브뤼셀, 미국 버팔로, 스테인 카탈루냐, 미국 시카고, 미국 클락스톤(Clarkston), 미국 컬럼비아(Columbia), 미국 달라스, 미국 데이턴(Dayton), 스웨덴 예테보리, 독일 함부르크, 우간다 캄팔라, 필리핀 레가스피(Legazpi City), 영국 런던, 미국 로스앤젤레스, 미국 매디슨, 이탈리아 밀라노, 미국 미니애폴리스, 벨기에 몰렌벡(Molenbeek), 캐나다 몬트리얼, 호주 모어랜드(Moreland) 시의회, 미국 뉴욕, 노르웨이 오슬로, 프랑스 파리, 미국 필라델피아, 미국 프로비던스(Providence), 에쿠아토르 키토, 미국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상파울루, 모로코 수마사(Souss Massa), 대만 타이페이, 미국 워싱턴 D.C. 등이 참여하였다.

25) NYC. "Transcript: Mayor de Blasio Delivers Keynote Address at the Global Mayors Summit." <https://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595-17/transcript-mayor-de-blasio-delivers-keynote-address-the-global-mayors-summit/#/0> (검색일: 2020. 10. 10.)

그림 8 난민-이민정책과 실무관련 세계 시장 정상회의(Global Mayors Summit on Refugee and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 참여도시



출처: Global Policy Initiative²⁶⁾

26) Global Policy Initiative (Columbia University). Global Mayors Summit on Migration and Refugee Policy and Practice Report, 2017, pp. 26-27.

IV. 결론

뉴욕은 미국 이민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전체 인구 중 이민자의 비중도 높고 언어적, 문화성 다양성이 보장된 지역이다. 860만 뉴욕시민 중 330만 명이 해외출생이다. 뉴욕주 전체 해외출생 주민이 440만 명임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언어적 측면에서도 860만 뉴욕시민들이 구사할 수 언어는 800 가지 이상이 된다.

미국에서 뉴욕, 아틀란타, L.A. 3개 도시가 도시외교를 지휘하기 위해서 시장 직속으로 국제교류부(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를 두고 있다. 그리고 뉴욕에는 유엔본부가 있어서, 뉴욕시 내에 전 세계 최대의 외교-영사 커뮤니티가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서 뉴욕시는 1960년대부터 유엔 등 외교가와 뉴욕시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려 하였다.

그리고 뉴욕시는 유엔의 아젠다에 민첩하게 대응하면서, 지역차원의 SDGs와 기후변화, 이민, 난민 문제의 아젠다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난민문제에 관련해서는 ‘난민-이민정책과 실무관련 세계 시장 정상회의(Global Mayors Summit on Refugee and Migration Policy and Practice)’를 개최하였다. 이는 전 세계 난민문제의 최전선에 대도시가 있음을 인식한 것으로 전 세계 도시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아래서 연방정부가 이민-난민문제에 포용적인 대응을 하지 않게 되었고, 뉴욕시는 이민-난민문제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에서 탈퇴를 하였지만, 뉴욕시는 뉴욕시가 파리협약을 준수한다는 행정명령을 실시하였다.

도시외교가 조약의 권한이 있는 중앙정부의 외교를 능가할 수는 없지만, 글로벌아젠다에 대해서 보다 폭 넓고 보다 세부적으로 전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최전선에서 도시는 한 국가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확산할 수 있는 공공외교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뉴욕시의 접근은 한국의 대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 활발한 해외출생 주민과의 소통과 국제기구 유치를 통한 외교 인력풀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시 또는 지역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글로벌 아젠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장 명료하면서도 확고한 도시외교의 방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 주민비율이 2019년 기준 전체 주민의 5.1%로 경기도(전체 주민대비 외국인 주민비율 5.4%) 다음으로 외국인 인구비율이 높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제화된 지방자치단체이다.²⁷⁾ 뉴욕시의 도시외교 아젠다가 형성될 때 도시 내 높은 외국인 인구비율에서 오는 다양성에 기반하였듯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의 국제화 및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아젠다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991년 4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1990년 9월 한·소 수교, 1990년 12월 노태우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간의 모스크바 정상회담에 이어서 1991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최된 한·소 정상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북방외교 기틀이 다져졌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2005년 1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하였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아젠다를 발전시키고 있다. 뉴욕시가 SDGs와 이민문제에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였듯이 제주특별자치도도 세계평화 이슈에서 국제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아젠다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7) 통계청.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0&tblId=TX_11025_A000_A (검색일: 2020. 11. 10.)

참고문헌

- 이정찬(국토연구원 국토환경·자원연구본부). “뉴욕시의 그린 뉴딜 정책과 OneNYC 2050.” 2019 서울에너지포럼 I. 2019, p.4.
- 이정찬. 뉴욕시 그린뉴딜 정책 및 시사점: One NYC 2050 및 기후활성화법(Climature Mobilization Act)을 중심으로. 국토연구원. 2019. p.4.
- Global Policy Initiative (Columbia University). Global Mayors Summit on Migration and Refugee Policy and Practice Report, 2017.
- NYC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State of Our Immigrant City. Annual Report. March 2018.
-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2018. Global Vision | Urban Action. Voluntary Local Review. 2018.
-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
<http://ncsd.go.kr/unSDGs?content=2> (검색일: 2020. 10. 10.)
- history.com. “Ellis Island.”
<https://www.history.com/topics/immigration/ellis-island> (검색일: 2020. 10. 10.)
- Local 2030. “NEW YORK CITY PRESENTS ITS SECOND VOLUNTARY LOCAL REVIEW ON ITS SDGs PROGRESS.”
<https://www.local2030.org/story/view/310> (검색일: 2020. 10. 10.)
-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https://www1.nyc.gov/site/international/about/about.page> (검색일: 2020. 10. 10.)
-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History of the Office.”
<https://www1.nyc.gov/site/international/about/history-of-the-office.page>
 (검색일: 2020. 10. 10.)
- NYC Mayor’s Office for International Affairs. “NYC Leads Global Voluntary Local Review Movement.”

<https://www1.nyc.gov/site/international/programs/voluntary-local-review.page>
(검색일: 2020. 10. 10.)

OneNYC 2050. “The Strategy.”

<http://onenyc.cityofnewyork.us/initiatives/the-strategy/> (검색일: 2020. 10. 10.)

PEW Research Center. “20 metropolitan areas with the largest number of immigrants in 2018.”

https://www.pewresearch.org/fact-tank/2020/08/20/key-findings-about-u-s-immigrants/ft_2020-08-20_immigrants_07a/ (검색일: 2020. 10. 10.)

Rand Corporation(랜드연구소). “City Diplomacy Has Been on the Rise. Policies Are Finally Catching Up.”

<https://www.rand.org/blog/2019/11/city-diplomacy-has-been-on-the-rise-policies-are-finally.html> (검색일: 2020. 10. 10.)

저자약력

안 상 옥 부경대학교 국제지역학부 교수

프랑스 파리3대학교 경제학박사(2007). 지역통합과 에너지·기후 변화문제를 연구하며, 주요 저서로는 「EU 미국 동아시아의 에너지 정책(한국학술정보, 2018)」, 「세계화의 진전과 도전(한국학술정보, 2019)」 등이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EU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자원선택: 미국,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유럽연구 38권 4호, 2020)」, 「러시아와 중국의 천연가스 사업협력: 배경과 전망(중소연구 43권 4호, 2020)」, 「EU 자동차 생산의 중동부 유럽이전: 체코사례를 중심으로(유럽연구 37권 3호, 2019)」, 「EU 내 LCC 발전과 주변부 공항의 활성화(EU연구 49호, 2018)」 등이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평화연구원은 2005년 1월 선포한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구현하는 데 구심점 역할을 하기 위해 2006년 3월 출범하였다.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확산시키고, 나아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평화담론의 거점이 되고자 설립되었고, 평화를 주제로 한 과제연구, 국내외 연구기관과 학술교류,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관련 정책대안 제시를 주요임무로 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지속적인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 및 다자대화와 다자협력의 논의를 위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개최 및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제도화 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뉴욕시의 도시외교

